

“모자보건·청소년 성교육에 역점”

가족계획협회가 정부·해외
지원금에 의한 안이한 활동
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21세기 향한 가족계획시범사업 세미나

인구증가 억제에 주력해왔던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인구증가를 1%이하 달성 뒤 정부·해외 지원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사업방향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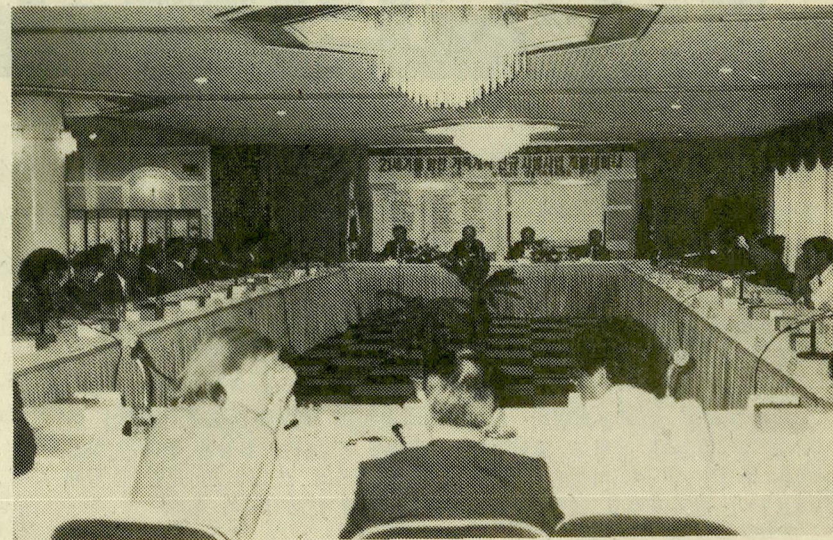
지난 5~6일 대한가족계획협회(회장 김용완)는 정부, 학계, 의료계, 관련전문가 50여명을 초청, 수안보에서 ‘21세기를 향한 가족계획 신규시범사업개발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에서 가족계획협회측은 “그동안의 가족계획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자보건과 청소년성교육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모자보건·성교육 통합사업 △청소년 성교육개발원 설치운영 △여성평생건강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업 △책임가정 센터운영 △청소년 성클리닉운영 등 19개 신규시범사업을 제시, 전문가들에게 중점사업선정 자료를 촉구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정부와 국제가족계획협회의 재정지원이 매년 크게

줄어들어 가고 있는 현단계에서 21세기를 겨냥해 현재 필요한 일은 세부적인 사업확정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재정독립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대폭적인 방향전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이날 가족계획협회가 새로운 사업으로 제시한 모자보건사업이나 청소년성교육사업이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가족계획협회가 계속 관여해왔던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위에서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했다기보다

이는 국제가족계획협회가 우리나라 신규시범사업에 2~3년간 매년 10만달러(7천만원상당)를 지원하겠다고 알려오자 이날 행사가 급히 마련된 데서도 연유한다. 내부적으로 21세기를 향한 신규시범사업실시 필요성을 느껴 방안을 모색했다기보다는 해외지원금에 의해 피동적으로 마련된 세미나였다.는 데서 전혀 새로운 대안이 나올



인구억제 성공·재정부족, 방향전환필요 구태의연한 ‘사업을 위한 사업’ 지적도

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열거했을 뿐이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또한 1박2일 세미나개최에 1만 5천불을 이미 쓴 것으로 알려져

“6천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할 시범사업을 위한 세미나치고는 너무 거창했다”는 소리가 높았다.

가족계획협회가 가족계획사업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그동안의 가족계획사업, 특히 불임시술 등이 너무 강제적이고 여성들을 주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사회단체나 국회에서 지적되었음에도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전혀 제시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미경 기자〉